

지역 ICT기업 육성·역량 강화 '앞장'

전주시, 기업들과 5~8일 미국 라스베가스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CT박람회 CES 참가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지역 ICT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 ICT기업의 CES 참가를 지원하며 세계 최대 ICT박람회인 '2023 CES 참가'를 돕기로 했다.

시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2023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지역 ICT기업들과 함께 참가할 계획을 4일 밝혔다.

'2023 CES'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최신 ICT기술 제품과 기술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는 약

2300개 기업과 10만 여명의 참가객이 다녀갈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는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과 지역 ICT 기업인 6명, 농진청 관계자 6명 등이 동행하며, 참가 기업들에게는 항공료의 50%와 통역, 셔틀버스 등이 지원된다.

시는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시와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CES 참가 리뷰를 공유하고, 기업의 해외 현지화 애로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실리콘밸리와 시애틀 사우스레이

크 유니온을 차례로 벤치마킹하고, 중소기업부 K-스타트업 시애틀센터를 찾아 미국 현지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지역ICT산업 육성 및 해외 현지화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 정부 정책 기조인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시장의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ICT기업의 기술 성장과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CES 참가 및 해외

현지 지원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ICT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 CES는 팬데믹 이후 급변한 ICT 기술 시장을 반영한 가장 큰 규모의 기술전시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기업 AMD의 CEO 리사 수,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 존디어의 회장 존 메이, 제너럴 모터스 CEO 메리 바라 등이 기조 연사로 무대에 올라 미래 전략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영 기자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 확대 추진

전주시, 내국인 관광객·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사 등 지급

2023년 새해부터는 내국인 단체 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도 전주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국내외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그동안 여행사에 지급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해 내·외국인 숙박관광객과 철도 이용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소규모 개별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내국인의 국내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내국인 숙박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여행상품에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인원 기준은 내국인 숙박인원 10명 이상, 외국인 숙박인원 5명 이상, 내·외국인 기차 연계 관광객 10명 이상인 여행사다.

숙박비 지원금은 1인당 15000원이며, 숙박시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50% 할인혜택과 함께 공연 관람과 문화체험 등을 위한 1인당 5000원 등이 지급된다.

또 버스를 대절하는 경우에도 숙

박관광객이 20명 이상 탑승하거나, 기차 연계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이 탑승하면 버스 1대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숙박관광객은 1박, 기차 연계 단체 관광객은 1일(당일)이 기준이다.

인센티브 신청을 원하는 여행사는 방문일정 3일 전 사전계획서를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전주시 관광정책과, 대우빌딩 6층) 또는 전자우편(cielmerhj@korea.kr)으로 제출한 뒤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면 된다.

여기서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은 종료되며, 신청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주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다시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을 전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전주시를 찾아주길 바란다.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사업뿐 아니라 전주만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매력을 배가시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전주형 통합돌봄' 지속 추진

시, 지역자활센터와 협약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돌봄안전망 구축

전주시가 올해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 없는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지난해 종료됐지만 기존에 구축한 민·관 협력형 돌봄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도 '전주형 통합돌봄 2023'을 지속 추진 계획을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영양더하기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락을 지원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영양결핍을 예방하고, 도시락 배송 시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방지 및 지역사회 내 돌봄안전

망 구축을 위한 수문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양더하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소불가나 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된다.

사업수행기관인 전주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냉장고기를 사용하고 음식의 간이나 음식의 양도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곤란이나 연하곤란(삼킨장애)에 대비해 부드러운 음식 등 다양한 메뉴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연간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배달원의 자세, 제공시간, 용기의 편의성, 음식의 질(선도, 맛, 양), 특별식 제공, 건의사항 및 개선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



전주시는 지난 3일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영양더하기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2022년 하반기 영양더하기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5%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통합돌봄

은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주지역자활센터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이영 기자

구분	'21. 10월	'22. 10월	증감(%)
발생(건)	437	379	-58(-13.3%)
사망(명)	11	12	1(9.1%)
부상(명)	699	588	-111(-15.9%)

2022년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도내 음주 교통사고 현황 (시간대별 음주사고 20~24시 15.6%, 22~24시 18.5%, 00~02시 11.9%)

전북경찰청, 음주사고 예방 위한 일제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까지 이어지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3년(계묘년) 새해에도 '상시음주단속 및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각오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에 따르면, 새해 신년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오는 6일 도내 특정 장소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 청장은 금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시간대 중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시간대 일제 집중단속으로 경각

심을 제고 시키고,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새해 지인들과의 신년 모임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3년 만에 해외 봉사활동 전개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해외 봉사활동에 나선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한민국 청년자원봉사단 20명을 인도네시아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최,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으로 전국 각 지역의 대학생 18명과 인솔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팀블라르초 초등학교에서

환경보호·보건위생·체육 등 3개 과목을 현지 아이들의 '눈높이 교육, 학교 벽화작업, 노후시설 보수, 환경정비' 등 여러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 해외봉사활동 시간을 통해 K-pop과 태권무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펼쳐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주시의 자원봉사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9월 월드컵펜드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그동안 발대식과 1~3차 국내교육 등을 거쳐 현지 봉사



활동 준비해왔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민약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를 위한 숙소와 전담 병원을 확보하고, 비상연락망도 갖췄다.

박정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많은 기관 중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선

정돼 해외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